

褚澄과 그의 醫學思想에 관한 연구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金振鎬¹*

A Study on Chu Cheng and His Ideas in the Medicine

Kim Jin-ho¹*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Objective : Chu Cheng(褚澄) was known as the author of *Zayaofang*(雜藥方) and *Chushiyishu*(褚氏遺書). His mentions in the medicine have been sufficiently told in his posterity. However,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Chu Cheng and his work like *Chushiyishu* in Korea. Here, I seek to investigate Chu Cheng and his ideas in the medicine.

Method : I investigate *Chushiyishu*, known as written by Chu Cheng and his scattered portions.

Result & Conclusion : His nom de plume(字) is Yandao(彦道). It was supposed that he was born before the year of 420, the era of Dong Jin(東晉) and died in 483. He wrote *Zayaofang* and *Chushiyishu*. However, the former was lost. The latter consists of 10 pieces of medical theories. The contents carved on the stone plate was discovered for the first time before 934 at a place presumed as his grave. Then, it was stored as the inner and outer coffins in the tomb of Xiao Guang(蕭廣) in 935 and written on the paper by Buddhist monk Shi Yikan(釋義堪) in 1127. Then, Liu Jixian(劉繼先) carved on the wood for publication and finally, the work was released in 1201. But, it deeply looks that the book was written by other follower.

Chu Cheng was a doctor excellent in the inspection and pulse method and his medical ideas prioritized Huo(火) in Mingmen(命門) and Spleen(脾). He expressed his opinions on the four phases of life, sexes and birth defects through Yangjing(陽精) and Yinxue(陰血). In addition, he explained the human pathology through Qixue(氣血). Unsmooth flow of Qi causes diseases by congestion. The entity circulating Yinxue is Yang and protested using urine to treat the hemoptysis(咳血) instead of medicine with cold features. It was frequently mentioned by his predecessors with the fact that Chu Cheng used different medications on housewives from widows and Buddhist nun monks. In addition, Chu Cheng proposed various opinions on cure, diagnosis, treatment, drug usage, pulse positions and hermaphrodites(半陰陽).

Key Words : Chu Cheng(褚澄), *Zayaofang*(雜藥方), *Chushiyishu*(褚氏遺書)

I. 서론

褚澄은, 중국역사상 왕조의 교체가 가장 심하여 정치적으로 매우 어지러웠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었던 시기인 魏晉南北朝¹⁾ 시대의 사람으로, 『雜藥方』과 『褚氏遺書』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²⁾. 『褚氏遺書』는 『靈樞』, 『素問』의 이치를 자못 發明하였고 李時珍과 王肯堂은 모두 그 내용을 채용하였으며³⁾ 저서의 내용을 비롯하여 의술과 관계된 그의 일화는 후대 많은 醫家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인용⁴⁾될 정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징이나 그의 저서인 『褚氏遺書』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논자는 저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저서로 알려진 『褚氏遺書』와 여러 서적들에 산재해 있는 편린들을 통하여 그의 의학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褚澄

1) 生涯

저징의 字는 彥道(彦通⁵⁾)로 河南 陽翟사람이다⁶⁾. 출생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고 483년(南齊⁷⁾·永明元年)에 卒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⁸⁾.

* 교신저자 : 金振鎬,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상지대학 교 한의과대학 원전사학교실

E-mail : kjh95184@hanmail.net Tel : 010-6277-8315
접수일(2013년 7월14일), 수정일(2013년 8월13일),
게재확정일(2013년 8월16일).

- 1) 김기옥 外 15人 著. 강좌 중국의학사. 고양시. 대성의학사. 2006. p.100.
- 2)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507.
- 3)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2.
- 4) 한국고전번역원. 오주연문장전산고.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2013.6.15.
- 5) 張杲. 醫說(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3.
- 6)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8.
- 7) 南齊 : 본래 '齊'지만 史家들은 北朝의 '齊(北齊)'와 구분하기 위하여 帝王 '南齊'로 표현하는바, 以下 본 논문에서는 '南齊'로 표현하였다.
- 8) 죽은 시기와 관련하여 丁介는 그의 跋文을 통해 永元元年(499년)에 卒하였다는 『南史』의 기록은 잘못이라고 지적

출생 시기에 대해, 저징과 관련된 事迹의 시대적 배경으로 劉宋⁹⁾, 南齊가 主를 이룬다는 점과 483년에 죽었으며 病死나 他殺의 기록이 없다는 점¹⁰⁾과 『本草備要』¹¹⁾에서 '晉·褚澄'이라고 표현한 점과 劉裕¹²⁾가 東晉의 恭帝로부터 帝位를 선양받아 南朝의 첫 번째 정권인 劉宋을 세우게 된 시기가 420년¹³⁾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추측하건데 東晉시대인 420년 이전에 출생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南齊書·褚淵傳』에 의하면, 그의 부친 湛之가 처음에 始安公主에게 장가들었으나 시안공주가 죽자 측실로 郭氏를 들여서 그의 異腹형인 褚淵을 낳았고, 뒤에 吳郡公主에게 장가들어 그를 낳았다고 한다¹⁴⁾. 그는 본디부터 재주와 기량이 있었는데, 널리 經方을 좋아하고 의술을 잘하였다.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나 벼슬아치를 진찰함에 질병을 극진히 살피며 궁구하였고 치료함에 있어서 貴賤을 가리지 않았¹⁵⁾.

그의 부친은 劉宋 武帝의 사위이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의 벼슬을 지냈으며, 그의 이복형인 淵은 南齊의 太宰·侍中·錄尚書의 벼슬을 지냈다. 그는 劉宋 文帝의 딸 廬江公主와 결혼하여 駙馬都尉가 되어 淸官¹⁶⁾과 높은 벼슬을 歷任하였다¹⁷⁾. 이후 蕭道成이 南齊를 세우고 나서는 吳郡太守를 지내다가¹⁸⁾ 高帝¹⁹⁾가 사랑한 아들 豫章王 嶷(억)을 치료하여 左

하였다.(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8.)

- 9) 劉宋 : 본래 '宋'이지만, 史家들은 후일 조광윤이 세운 '宋'과 구분하기 위하여 帝王 '劉宋'으로 표현하는바, 以下 본 논문에서는 '劉宋'으로 표현하였다.
- 10) 陳夢雷 纂輯. 醫術名流列傳(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醫聖堂. 1993. pp.117-118.
- 11) 汪昂. 本草備要. 서울 : 高文社. 1989. p.235.
- 12) 劉裕의 출생-사망 시기는 363-422년이다.
- 13) 樊樹志 著, 김지환 外 3人 옮김. 100가지 주제로 본 중국의 역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p.247.
- 14) 陳夢雷 纂輯. 醫術名流列傳(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醫聖堂. 1993. p.117.
- 15) 張杲. 醫說(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3.
- 16) 淸官 : 지위가 낮고 녹(祿)이 많지 않으나 뒷날에 높일 좋은 벼슬. 청렴한 벼슬아치.
- 17)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8.
- 18) 張杲. 醫說(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3.
- 19) 즉 南齊 太祖인 蕭道成을 말한다.

民尙書에 발탁되었으며²⁰⁾, 483년에 御史中丞 袁象(원단)의 상소에 의해 免官²¹⁾禁錮²²⁾되었다가 용서 받고 侍中과 右軍將軍이 되어 근면함으로 인정받았으나 그 해에 죽었다. 그의 딸은 南齊의 東昏皇后가 되었으며, 永元元年(499년)에 그는 金紫光祿大夫에 추증되었다²³⁾.

한편, 그의 부친이 돌아가시자 그의 親母인 吳郡公主가 이복형인 淵을 적자로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淵이 죽은 후 많은 돈을 가지고 招提寺를 방문하였는가하면, 아울러 南齊 태조로부터 淵이 하사받은 흰 담비 방식과 壤땅에서 만든 갓옷 및 갓끈을 속바쳤고, 淵의 冠과 무소뿔로 장식한 띠 및 淵이 평소 타던 황색 소를 속바친 점 등²⁴⁾을 미루어 볼 때 이복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2) 著書

저장의 저서로는 『雜藥方』과 『褚氏遺書』가 있다.

(1) 『雜藥方』

『七錄』²⁵⁾에 이 책은 二十卷이라고 하였으나, 亡佚되었다²⁶⁾.

許叔微는 “옛 劉宋의 褚澄은 비구니와 과부를 치료함에 특별히 처방을 다르게 만들었다.”²⁷⁾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방 내용은 보이지 않으나 일반적인 부녀자의 처방과 구성이 달랐을 것으로 보이며, 『雜藥方』에 포함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本草綱目』에는 人尿가 咳血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褚氏遺書·津潤』의 내용이 인용되었는데²⁸⁾, 『本草備要』에서는 童便을 설명하면서 대략 같은 내용에 “晉褚澄勞極論云, 降火甚速, 降血甚神”의 구절이 더 첨가되어 있다²⁹⁾. 첨가된 내용은 『褚氏遺書』에는 보이지 않는 篇名(勞極論)과 내용으로서, 降火와 降血 등 약제의 효능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이 또한 『雜藥方』에 포함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褚氏遺書』

『宋史』에 처음으로 기록이 보인다³⁰⁾.

徐常吉은 “『尊生秘經』 1권이니, 六朝時代 南齊 저자의 저작이다. 唐末 黃巢의 亂 때 무덤의 石刻이 발견되어 維揚사람 蕭廣이 손으로 베겼으니, 이 책이 비로소 전해지게 되었다.”³¹⁾라고 하였으나, 丹波元胤은 “儲泳의 『祛疑說』을 살펴보면 이 책을 일컬어 『尊生秘經』이라 하였으니, 때문에 徐常吉은 그 제목을 좇아 적었다. 그러나 近世에 전해지는 본에는 ‘尊生秘經’으로 써 題籤³²⁾한 것이 없다.”³³⁾라고 하여 『褚氏遺書』를 『尊生秘經』이라고 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

『醫術名流列傳』에 의하면 “『河南通志』를 살펴보면, 褚澄은 陽翟사람으로 그가 지은 醫論十篇을 세상에서 『褚氏遺書』라고 칭한다.”³⁴⁾라고 하여, 篇數

20)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8.

21) 免官(면관) : 관리(官吏)의 직책(職責)에서 면직(免職)시킴

22) 禁錮(금고) : 죄과 혹은 신분(身分)에 허물이 있어 머슬에 쓰지 않음

23) 陳夢雷 纂輯. 醫術名流列傳(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醫聖堂. 1993. pp.117-118.

24) 陳夢雷 纂輯. 醫術名流列傳(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醫聖堂. 1993. p.117.

25) 南朝 양(梁)나라의 완효서(阮孝緒)가 劉宋과 南齊 이래의 도서 기록들을 널리 수집해 편찬한 방대한 목록서적.

26)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507.

27) 許叔微.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141. “昔宋褚澄療尼師寡婦別製方”

28)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942. “人喉有竅, 則咳血殺人. 喉不停物, 毫發必咳. 血既滲入, 愈滲愈咳, 愈咳愈滲. 惟飲溲溺, 則百不一死, 若服寒涼, 則百不一生.”

29) 汪昂. 本草備要. 서울 : 高文社. 1989. p.235. “晉褚澄勞極論云, 降火甚速, 降血甚神. 飲溲溺, 百無一死, 服寒涼藥, 百無一生.”

30)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1.

31)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509. “徐常吉曰 尊生秘經一卷, 六朝時齊褚澄所著. 唐末黃巢亂, 發其塚之石刻, 維揚人蕭廣手摹之, 其書始傳.”

32) 題籤(제첩) : 題籤(제첩). 표지에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종이 쪽지에 써서 앞표지에 붙인 책의 제목.

33)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510. “按儲泳祛疑說, 稱是書曰尊生秘經, 故徐常吉從識其目. 然近世傳本, 未有以此題籤者也.”

와 책명에 대해 언급하였다.

『欽定四庫全書』에 실린 『褚氏遺書提要』³⁵⁾에서는 “이 책은 受形·本氣·平脈·津潤·分體·精血·除疾·審微·辨書·問子 등의 十篇으로 나뉘어 있는데, 대강의 내용은 사람의 氣血과 陰陽의 심오한 바를 발휘한 것이다.”³⁶⁾라고 하여 책의 篇名과 대강의 내용에 대해 개괄하였다.

책의 출처와 관련하여서는 後唐·清泰二年(935년)의 蕭淵序에 그 내용이 자세하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黃巢가 變亂을 일으킴에 많은 도적떼들이 亂을 따라 생겨나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금은보화를 도굴하다가 큰 구덩이를 발견하였다. 四方은 각각 1丈 남짓하고 가운데는 돌로 둘러싸여 18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태는 케처럼 만들어져 있었다. 그 구덩이를 덮은 돌의 기록된 바에 의하면 “齊나라 褚澄이 돌아간 곳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관 뚜껑을 열어보니 뼈에는 이미 뱀과 개미가 가득했으며 구덩이를 두른 돌의 안쪽 면에는 文字가 선명하였다. 도적들이 兵書인가 의심하여 구덩이 바깥으로 옮겨서 살펴보고는 버렸다. 선친께서 우연히 보시고 철저히 깨워주시곤 마을 이웃에게 신중히 지킬 것을 부탁하셨다. 다음 해 배에 빠짐없이 싣고 돌아오셔서서는 관청에 보내어 그 내용을 널리 전하고자 하셨으나, 마침 때가 전쟁이 끊이지 않던 때였고 선친 또한 돌아가셨다. 遺命하시길 “異物은 마침내 변화하여 없어질 것이니 神書의 理致를 오랫동안 간직하기 어렵다. 褚石으로써 내 棺槨을 채울 것이니, 은폐되면 내 해골이 온전할 것이요, 褚石이 혹 발견되면 내 이름이 또한 드러날 것이다. 淵은 유능한 사람을 불러 먹을까고 새기게 하여 百本을 散布하라.”고 하셨다. 남김없이 遺訓을 따랐다. 돌아가신 선친의 諱는 廣이

요, 字는 叔常이다.

清泰二年(935년) 五月 十九日 古揚 蕭淵이 序하다.³⁷⁾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褚氏遺書』라는 명칭은 저장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 있던 石版에 새겨진 내용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褚石으로써 蕭廣 자신의 棺槨을 채움과 동시에 아들 蕭淵으로 하여금 百本을 散布하라고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그 내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 兩 방향으로 내용을 후세에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934년 이전에 저장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책의 내용들이 18개의 석판에 새겨진 채로 처음 발견된 후로 935년에 蕭廣의 무덤에 蕭淵의 序가 더해진 19片³⁸⁾이 棺槨의 형태로 다시 매장되어 보존되다가 1127년³⁹⁾ 승려 釋義堪에 의해 종이에 써져 보존되었으며, 이후에 劉繼先⁴⁰⁾이 나무에 새기고 출판하여 1201년⁴¹⁾ 그 책이 비로소 전해지게 된 것이다.⁴²⁾

34) 陳夢雷 纂輯. 醫術名流列傳(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醫聖堂. 1993. p.118. “按『河南通志』, 褚澄陽翟人, 所著醫論十篇, 世稱『褚氏遺書』.”

35) 이하 「提要」라 약칭한다.

36)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1. “是書分受形·本氣·平脈·津潤·分體·精血·除疾·審微·辨書·問子十篇, 大旨發揮人身氣血陰陽之奧.”

37)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2. “黃巢造變, 從亂群盜, 發人冢墓, 掘取金寶, 遇大穴焉. 方丈餘, 中環石, 十有八片, 形制如槨. 其蓋穴石, 題曰有齊褚澄所歸. 啓蓋棺, 骨已蛇蟻, 所穴環石內向, 文字曉然. 盜疑兵書, 移置穴外, 視之棄去. 先人遇見, 讀徹, 囑鄉鄰慎護. 明年具舟載歸, 欲送官以廣其傳, 遭時兵革不息, 先人亦不幸. 遺命, 異物終當化去, 神書理難久藏, 其以褚石, 爲吾棺槨之實, 隱則骸骨全, 褚石或興, 吾名亦顯. 淵寡能者, 調墨治刻, 百本散之. 餘遵遺戒. 先人諱廣, 字叔常. 清泰二年五月十九日古揚蕭淵序”

38)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3.

39) 1127년 : 釋義堪의 書에 나타난 “靖康初”는 송(宋)나라 徽宗(欽宗) 때의 연호(年號)로서 1126년이니, 문장 말미에 나타난 “二年結制前五日, 衛國釋義堪書.”의 ‘二年’은 1127년이 되겠다.(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3.)

40) 劉繼先 : 「提要」에는 ‘劉義先’이라고 되어 있다.(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1.)

41) 1201년 : 嘉泰元年(1201년)에 丁介가 跋文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8.)

42)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8.

(3) 『褚氏遺書』의 저자에 대한 논쟁

『褚氏遺書』가 後人에 의해 僞托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提要」에서는 “宋때 醫理에 정통한 자가 저술한 것을 澄에게 僞托하여 傳한 것으로 의심된다.”⁴³⁾고하여 僞托의 시기로 宋을 언급하였고, 『中國醫學史』⁴⁴⁾에서는 宋보다 더 이른 시기인 後唐때에 蕭淵이 저자의 作으로 僞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褚氏遺書』가 저자의 저작이라고 볼 수 있는 점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後人에 의해 僞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褚氏遺書』는 저자의 저작이다

첫째, 趙獻可의 『醫貫』⁴⁵⁾을 보면 “褚齊賢云 人之初生受胎, 始于任之兆, 惟命門先具, 有命門, 然後生心, 心生血, 有心然後生肺, 肺生皮毛, 有肺然後生腎, 腎生骨髓, 有腎則與命門合, 二數備, 是以腎有兩岐也.”라고 하여 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褚氏遺書』에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褚氏遺書·平脈』에서 남녀의 脈位를 정함에 있어 ‘受命之根本’을 먼저 정하고 다음으로 臟腑의 脈位를 정하였다는 사실이다. 臟腑와 별개의 존재인 ‘受命之根本’을 命門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醫貫』에서 저자의 말로 인용된 ‘惟命門先具’라는 말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둘째, 張杲는 『醫說』⁴⁶⁾을 통하여 저자가 과부와 비구니를 치료함에 있어서 처첩의 치료와 달리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내용은 『褚氏遺書』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견해가 『褚氏遺書·精血』에서 “여자의 天癸가 이미 이르렀는데 10년이 넘도록 남자와 交合하지 않으면 조화롭지 못하게 되고,…… 조화롭지 못하면 오래된 血이 나가지 않고 새로운 血이 그릇되어 行하니, 혹 스며들어 뼈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 변하여

睡이 되기도 하며 혹 交합을 하나 자식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⁴⁷⁾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부나 비구니가 처한 환경이 나이가 많아지도록 交合하지 못하는 여인의 환경과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런즉 과부나 비구니의 질병은 오래도록 交合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인의 질병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체에 있어서 命門을 중요시 한 점과 여인의 특정 질병에 있어서 발병 원인에 대한 인식의 공통성은 『褚氏遺書』와 저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다.

② 『褚氏遺書』는 後人이 僞托한 것이다

僞托의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褚氏遺書』가 전해져 온 과정이 ‘저자의 무덤(18개의 석판)→蕭廣의 무덤(蕭淵의 序가 더해진 19片)→釋義堪(중이에 써서 보존)→劉繼先(출판)’으로 복잡하여 後人에 의한 전래과정의 창작이나 임의적 조작이 가능한 배경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더하여 丁介의 跋文에 나타난 劉繼先(劉義先)이 미상의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褚氏遺書·辨書』⁴⁸⁾에서 “運氣之宗, 起於『素問』”, “推驗多舛, 拯救易誤”라고 한 점들이 僞托했다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제시된 근거는 『褚氏遺書』의 저자가 運氣를 실제적으로 활용했음을 말하는데, 運氣의 활용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素問·六節藏象論』 등의 篇中에 일부 나타난 運氣관련 내용만으로는 직접적 활용이 어렵다. 그렇다면 王冰에 의해 補入된, 運氣七篇의 내용을 포함한 『素問』을 『褚氏遺書』의 저자가 보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용해 본 결과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여 중국에는 運氣에 대하여 회의적인 평가⁴⁹⁾를 내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8세기에 王冰에 의해 補入된 運氣七篇의 내용을 5세기에 생존했던 저자가 본 것처럼 기재된 『辨書』

43)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2.
44)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132.
45) 趙獻可. 醫貫.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6.
46) 張杲. 醫說(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3.

47)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6. “女人天癸既至, 踰十年, 無男子合則不調,…… 不調則舊血不出, 新血誤行, 或漬而入骨, 或變而之腫, 或雖合而難子.”
48)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7.
49) 아래의 ‘9) 辨書’에 그 내용을 언급하였다.

의 내용은 僞托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이상 兩 方面으로 살펴보고 그 근거의 輕重을 감안했을 때, 『褚氏遺書』는 後人이 저징의 作으로 僞托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辨書』에서 “醫理를 말함이 이치를 어기지 않았고 방법이 뜻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비록 後學으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또한 훌륭한 스승이 된다.”⁵⁰⁾라고 하였는바, 僞托에 대한 정당성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 醫學思想

저징의 저작으로 알려진 2권의 의서 중 현존하는 서적은 『褚氏遺書』뿐이다. 그런데 이 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僞托한 정황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하여 저징의 의학사상을 살펴보는 것이 완벽한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후대의 여러 의가들이 『褚氏遺書』의 내용을 저징의 말로 인용하고 있고, 後人의 僞托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으로 저징을 선택한데에는 모종의 연관성이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褚氏遺書』⁵¹⁾를 연구 대상으로 수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기타 서적들에 산재해 있는 저징과 관련된 내용들⁵²⁾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의학사상을 살펴보았다.

1) 受形

“男女가 交合하여 二情이 서로 통함에, 陰血이 먼저 이르고 陽精이 뒤에 부딪혀 血이 퍼서 精을 싸면 精이 들어가 뼈이 되어 남자가 형성되고, 陽精이 먼저 들어가고 陰血이 뒤에 참여하여 精이 퍼서 血을 싸면 血이 들어가 本에 자리하여 여자가 형성된다.”⁵³⁾라고 하여, 부모가 교합하여 자식을 출산함에

있어서 아이의 성별은 精과 血의 先後관계에 의해 나뉜다고 보았다. 그리고 陽精은 남자를 형성하는 주된 요소이며 陰血은 여자를 형성하는 주된 요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결혼을 앞둔 羸弱한 남녀를 補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옛날의 좋은 의사는 먼저 이를 살펴 여린 여자를 補함에 먼저 養血壯脾하고, 약한 남자를 補함에 壯脾節色하게 하며, 여린 여자는 마땅히 때에 이르러 시집보내야 하고, 약한 남자는 마땅히 건강해지기를 기다려 혼인시켜야 한다.”⁵⁴⁾라고 하여, 남자는 補精(節色)을 위주로 하고 여자는 養血을 위주로 하여 補할 것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남녀에 있어서 공히 壯脾할 것을 언급하였으니, 이는 精血의 충만이 脾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것으로 사료된다. 精血을 중시한 그의 관점은 부모의 나이에 의한 아이의 羸弱에서도 나타난다. “아버지가 젊고 어머니가 늙은 경우 태어나는 여자는 반드시 여위고, 어머니가 건강하고 아버지가 쇠약하면 태어나는 남자는 반드시 약하다.”⁵⁵⁾라고 하여, 陰血이 주가 되는 여자(어머니)가 늙은 경우(즉 陰血이 쇠약해짐) 이를 바탕으로 하는 女兒도 반드시 여위며, 陽精이 주가 되는 남자(아버지)가 늙은 경우(즉 陽精이 쇠약해짐) 이를 바탕으로 하는 男兒도 반드시 약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陽氣는 얼굴에 모이는 故로 男子는 얼굴이 무거워서 易사하면 반드시 앞드리게 되고, 陰氣는 등에 모이는 故로 女子는 등이 무거워서 易사하면 반드시 위를 향하게 된다.”⁵⁶⁾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李暎의 『星湖僿說』에서 “무릇 양기가 낮에 모인 자도 음은 반드시 등에 모이기 마련이요, 음기가 등에 모인 자도 양은 반드시 낮에 모이기 마

p.543. “男女之合, 二情交暢, 陰血先至, 陽精後衝, 血開裹精, 精入爲骨, 而男形成矣. 陽精先入, 陰血後參, 精開裹血, 血入居本, 而女形成矣.”

54)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3. “古之良工, 首察乎此, 補羸女, 先養血壯脾, 補弱男, 則壯脾節色, 羸女宜及時而嫁, 弱男宜待壯而婚.”

55)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3. “父少母老, 產女必羸, 母壯父衰, 生男必弱.”

56)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3. “陽氣聚面, 故男子面重, 溺死者必伏. 陰氣聚背, 故女子背重, 溺死者必仰.”

50)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7. “說不乖理, 方不違義, 雖出後學, 亦是良師.”

51) 아래의 ‘1) 受形’에서 ‘10) 問子’까지의 내용에 해당되며, 각 篇名별로 살펴보았다.

52) 아래의 ‘11) 기타’의 내용에 해당된다.

53)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런이니,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는가.”⁵⁷⁾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陰陽이 고르게 이르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된다.”⁵⁸⁾라고 하였는바, 조선 세조 때의 舍方知나 명종 때의 林性仇之처럼 半陰陽⁵⁹⁾의 출현은 꽤나 오래 된 것으로 보인다.

2) 本氣

“陽氣는 子中에 左足으로부터 올라가 左股·左手指·左肩·左腦를 돌고 횡으로 右腦로 건너가 右肩·右臂·手指·脇·足을 지나니, 또 子中이 된다. 陰氣는 午中에 右手心으로부터 右臂·右肩을 지나 횡으로 左肩으로 건너가 左臂·左脇·左足·外腎·右足·右脇을 지나니, 또 午中이 된다.”⁶⁰⁾라고 하여 인체의 氣순환에 대해 陽氣와 陰氣로 구분 지었으니, 陽氣는 子中에 左足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고 陰氣는 午中에 右手心으로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돈다고 설명하였다. 陰陽 二氣의 운행에는 출발시점과 순환방향의 차이 뿐만 아니라 경로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陽氣가 지나는 곳은 가득 채우고 두루 돌아다니며, 陰氣는 위로 腦를 지나지 않고 아래로 손가락과 발가락에 이른다.”⁶¹⁾라고 하여 그 경로의 차이를 명시하였다. 이러한 氣의 운행이 痰에 의해 막히게 되면 痰疾이 발생하게 되는데, 귀가 虛해지기도 하고 上에서는 逆上하기도 하며 下에서는 鬱하여 臟腑가 기능을 잃어 몸의 손상을 유발시킨다⁶²⁾고 하였다. 또

“氣의 근본이 쇠약해져서 氣가 움직여 도는 것이 어려워지고 느려지며 혹 두루 미치지 못하게 됨에 이르러서는 血 또한 치우쳐 막히게 된다. 風濕寒暑가 그 틈을 타서 침입하여 痰疾이 생기는데, 痰積과 같다.”⁶³⁾라고 하여 ‘氣弱 → 血滯 → 風濕寒暑의 侵襲 → 痰疾(痰積)’의 과정을 언급하였는바, 질병에 있어서 痰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중시한 듯하다. 氣는 기본적으로 쉼 없이 운행하는 것을 좋다고 여겼는바, 熱로 인한 汗出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 및 대소변의 순조로운 배설도 氣가 通하는 현상⁶⁴⁾이라고 설명하였다.

3) 平脈

脈을 論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左右와 寸關尺의 三部로 나누어 구분 지었다⁶⁵⁾. 그리고 남녀에 따라 ‘受命之根本’을 다른 위치에 배속시켰는바 남자의 경우 右尺에 배속시켰으니, 그 이유를 “左手의 寸은 極上이고 右手의 尺은 極下이다. 男子는 陽을 좇아 下로부터 上으로 生하니, 故로 極下의 곳인 右手의 尺이 命을 받는 根本이 된다.”⁶⁶⁾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左寸에 배속시켰으니, 그 이유를 “女子는 陰을 좇아 거꾸로 上으로부터 下로 生하니, 故로 極上의 곳인 左手의 寸이 命을 받는 根本이 된다.”⁶⁷⁾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子에서 一陽이 生하고 午에서 一陰이 生하는 易의 이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本氣」에서 살펴본 左足으로부터 陽氣가 子中에 올라가고 右手心으로부터

57) 한국고전번역원. 성호사설.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2013.6.15.

58)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3. “陰陽均至, 非男非女之身.”

59) 半陰陽: 남녀추니(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

60)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543-544. “陽氣以子中, 自左足而上, 循左股·左手指·左肩·左脇, 橫過右腦·右肩·右臂·手指·脇·足, 則又子中矣. 陰氣以午中, 自右手心, 通右臂·右肩, 橫過左肩·左臂·左脇·左足·外腎·右足·右脇, 則又午中矣.”

61)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4. “陽氣所歷, 充滿周流, 陰氣上不過腦, 下遺指趾.”

62)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4. “一爲痰積壅塞, 則痰疾生焉. 疾證醫候, 統紀浩繁, 詳其本源. 痰積虛耳, 或痰聚上, 或積留中, 遏氣之流, 艱於流轉, 則上氣逆上, 下氣鬱下, 臟腑失常, 形骸受害.”

63)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4. “暨乎氣本衰弱, 運轉艱遲, 或有不周, 血亦偏滯. 風濕寒暑乘間襲之, 所生痰疾, 與痰積同.”

64)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4. “凡人之生, 熱而汗, 產而易, 二便順利, 則氣之通也.”

65)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4. “脈分兩手, 手分三部, 隔寸尺者, 命之曰關, 去肘度尺曰尺, 關前一寸爲寸.”

66)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4. “左手之寸極上, 右手之尺極下. 男子陽順, 自下生上, 故極下之地右手之尺, 爲受命之根本.”

67)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4. “女子陰逆, 自上生下, 故極上之地左手之寸, 爲受命之根本.”

터 陰氣가 午中에 운행한다는 것과는 그 기본정신에 있어서 통한다고 하겠다.

남녀간에 ‘受命之根本’의 위치를 정한 다음 “萬物은 토로부터 나와 오직 脾가 앞선다.”⁶⁸⁾라고 하여, 남녀 공히 脾를 그 다음으로 배속하였다. 五臟중에 脾를 정한 후로는 相生의 관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나머지 臟을 배속시켰으며, 腑에 있어서는 臟腑相合의 원칙에 따라 배속하였으니,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표 1, 표 2.)

男	左手	右手
寸	心(小腸)	肺(大腸)
關	肝(膽)	脾(胃)
尺	腎(膀胱)	受命之根本

표 1. 남자의 脈

女	左手	右手
寸	受命之根本	腎(膀胱)
關	脾(胃)	肝(膽)
尺	肺(大腸)	心(小腸)

표 2. 여자의 脈

위의 표 1, 2와 같은 배속관계 때문에 “男子의 右手 尺脈이 항상 弱한 것은 처음 생겨 아주 작은 氣이기 때문이고 女子의 尺脈이 항상 強한 것은 心火의 자리이기 때문이다.”⁶⁹⁾라고 하였는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루어 보자면 여자의 左寸脈은 항상 弱할 것이고 남자의 左寸脈은 항상 強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診脈함에 있어서 환자의 身長과 肥瘦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하였으니, “몸이 호리호리한 사람은 脈이 疏闊하고 몸이 왜소한 사람은 脈이 稠密하며, 肥人인 경우는 평소에 沈하게 나타나니 沈脈은 더욱 沈하게 나타날 것이고, 瘦人인 경우는 평소에 浮하게 나타나니 浮脈은 더욱 浮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이치에 밝지 못하면 어찌 못 질병들을 치료하겠는가?”⁷⁰⁾라고 하여, 浮沈의 구분에 더욱 신

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위의 표 1, 2를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남자와 반대로 尺에서 心肺를 살피게 되어있다. 이러한 부분은 후일 徐春甫에 의해 ‘妄謬’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褚氏遺書』가 탁명에 의해 이루어진 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⁷¹⁾.

앞서 受形에서 언급한 ‘半陰陽’에 대한 脈도 언급하였으니, 診脈하는 의사의 성별에 따라 對를 이루는 性의 脈이 나타난다⁷²⁾고 하여 그만의 독특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4) 津潤

天地의 사이에 자리한 水가 氣의 上下 交通에 의해 땅을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며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도 하여 萬物을 生化한다⁷³⁾고 하면서, 사람도 天地를 닮아서 이러한 水가 있다⁷⁴⁾고 하였다. 다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水의 所在나 체외로 배출되는 형태에 따라 명칭을 달리 하였으니, “上에 있으면 痰이 되고 피부에 숨어 있으면 血이 되며 下에 있으면 精이 되고 毛竅를 따라 나오면 汗이 되며 腹腸을 따라 나오면 泄瀉가 되고 瘡口를 따라 나오면 水가 된다.”⁷⁵⁾라고 하여, 각각 痰·血·精·汗·泄瀉·水 등으로 이름 지었다. 이러한 水는 각각의 적절함을 벗어나 지나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된다⁷⁶⁾고 하였는바, 생리적·병리적인 水의 소모에 대해 상당히 진중한 입

68)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4. “萬物從土而出, 惟脾爲先.”

69)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4. “男子右手尺脈常弱, 初生微眇之氣也, 女子尺脈常強, 心火之位也.”

70)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5. “體修長者脈疏, 形侏儒者脈密, 肥人如沈, 而正沈者愈沈, 瘦人如浮, 而正浮者愈浮. 未燭斯理, 曷愈家疾.”

71)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p.18-19.

72)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4. “非男非女之身, 感以婦人, 則男脈應診, 動以男子, 則女脈順指.”

73)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5. “天地定位, 而水位乎中, 天地通氣, 而水氣蒸達, 土潤膏滋, 雲興雨降, 而百物生化.”

74)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5. “人肖天地, 亦有水焉.”

75)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5. “在上爲痰, 伏皮爲血, 在下爲精, 從毛竅出爲汗, 從腹腸出爲瀉, 從瘡口出爲水.”

76)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5. “痰盡死, 精竭死, 汗枯死, 瀉極死, 水從瘡口出不止, 乾即死.”

장을 보였다. 血에 이르러서는 그 설명이 더욱 자세하니, 생리적으로는 血의 充滿에 의해 目·耳·四肢·肌膚가 각기 제 기능을 발휘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⁷⁷⁾. 병리적으로는 크게 便血과 咳血로 구분지어 설명하였으니, “便血은 그래도 그치게 할 수 있으나 咳血은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⁷⁸⁾라고 하여, 각 血症의 輕重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특히 咳血에 있어서는 “소변을 마시면 백 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으나 寒涼한 약을 복용하면 백 명 중에 한 명도 살지 못하니, 血이 비록 陰類이나 그 血을 돌리는 것은 따뜻한 陽이구나!”⁷⁹⁾라고 하여, 寒涼한 약의 유해성을 언급하면서 그 대안으로 소변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고, 그 밑바탕에는 陰血을 돌리는 주체가 陽이라는 견해로써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咳血에 대한 견해는 후대에 “千古之龜鑑”⁸⁰⁾이라는 말로 평가받았다.

5) 分體

신체의 각 부위를 크게 다섯으로 분류하였으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표 3.)

5종 분류	신체 각 부위
竅	耳, 目, 鼻, 口, 陰 ⁸¹⁾ , 尻 ⁸²⁾
肢	臂, 股, 指, 趾
關	雙乳, 外腎
餘	齒, 髮, 爪甲
附	枝指 ⁸³⁾ , 旁趾 ⁸⁴⁾

표 3. 신체 각 부위의 분류

77)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5. “至於血, 充目則視明, 充耳則聽聰, 充四肢則舉動強, 充肌膚則身色白.”
 78)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5. “便血猶可止, 咳血不易醫.”
 79)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5. “飲溲溺則百不一死, 服寒涼則百不一生, 血雖陰類, 運之者, 其和陽乎.”
 80)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2.
 81) 竅로 구분하여 배속하였는바, 생각건대 前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82) 竅로 구분하여 배속하였는바, 생각건대 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83) 枝指 : 육손이의 여섯 번째 손가락을 말한다.
 84) 旁趾 : 육발이의 여섯 번째 발가락을 말한다.

이 중 신체 몇몇 부위의 단련을 위한 방법도 소개하고 있으니, “耳力を 기르려면 항상 배가 든든해야 하고, 目力を 기르려면 항상 눈을 감아야 하며, 臂指를 기르려면 항상 屈伸을 해야 하고, 股趾를 기르려면 항상 걸어야 한다.”⁸⁵⁾라고 하였다. 이는 養生書에 자주 인용되는 말로서, 『東醫寶鑑』에서는 『養生類纂』의 말을 인용하여 “類纂曰 養目力者常瞑, 養耳力者常飽, 養臂指者常屈伸, 養股趾者常步履.”⁸⁶⁾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신체 부위의 계절에 따른 양생의 방법도 언급하였으니, “여름에는 臟을 서늘하게 해야 하고 겨울에는 臟을 따뜻하게 해야 하니, 그늘진 四肢의 말단은 비록 여름이라도 따뜻하게 해야 하고, 心火를 싸고 있는 가슴은 비록 겨울이라도 뜨겁게 하면 곤란하다.”⁸⁷⁾라고 하여 臟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아울러 四肢와 가슴의 특성에 따른 각각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6) 精血

“飲食의 五味는 髓·骨·肉·血·肌·膚·毛·髮을 기른다.”⁸⁸⁾라고 하였고 “陽精과 陰血은 모두 飲食五味의 정기이다.”⁸⁹⁾라고 하였는바, 결국 人身을 생장시키는 것은 五味를 통해 얻어진 精血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 精血은 남녀에 따라 升하고 溢하는 시기의 구분이 있으니, 남자의 경우 陽中有陰하기 때문에 陰의 中數인 8을 기준으로 하여 一八의 8세에 陽精이 升하고 二八의 16세에 溢하며 여자의 경우 陰中有陽하기 때문에 陽의 中數인 7을 기준으로 하여 一七의 7세에 陰血이 升하고 二七의 14세에 溢한다고 하였다⁹⁰⁾. 이러한 精血은 부모의 몸을 두

85)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5. “養耳力者常飽, 養目力者常瞑, 養臂指者常屈伸, 養股趾者常步履.”
 86) 허준.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4. p.76.
 87)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5. “夏臟宜冷, 冬臟宜溫, 背陰肢末, 雖夏宜溫, 胸包心火, 雖冬難熱.”
 88)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5. “飲食五味, 養髓骨肉血肌膚毛髮.”
 89)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6. “陽精陰血, 皆飲食五味之實秀也.”
 90)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루 다니기 때문에 부모의 精血을 닳아 이루어진 자식의 형체는 부모 신체 中 일부의 결손을 닳지 않는다고 하였으니⁹¹⁾, 자식이 부모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人身의 온전한 형태를 갖추어 태어나는 것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남녀 간에 있어서 交合 時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精血을 위주로 하여 언급하였다. 남자의 경우 “精이 아직 通하지 않았는데 여자를 사랑하여 그 精을 通하게 하면 온 몸에 가득 차지 않는 곳이 있게 되어 다른 날 형용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게 되고, 陰이 이미 痿하였는데 여자를 생각하여 그 精을 내리면 精은 나가지 않고 안에서 썩어 소변 길이 막혀 淋이 된다.”⁹²⁾라고 하여, 너무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갖거나 자신의 성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女色을 탐하면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여자의 경우 “天癸가 이미 이르렀는데 10년이 넘도록 남자와 交合하지 않으면 조화롭지 못하게 되고, 10년이 안되었는데 남자를 생각하여 교합하면 또한 조화롭지 못하게 된다. 조화롭지 못하면 오래된 血이 나가지 않고 새로운 血이 그릇되어 행하니, 혹 스며들어 뼈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 변하여 腫이 되기도 하며 혹 교합을 하나 자식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⁹³⁾라고 하여, 天癸가 이미 이르렀더라도 일정 시간을 경과하여 交合하되 나이가 많아지도록 交合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아울러 빈번한 성생활이나 잦은 출산과 수유 또한 몸을 虛弱하게 만들고 血을 마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⁹⁴⁾.

pp.545-546. “男子爲陽，陽中必有陰，陰之中數八，故一八而陽精升，二八而陽精溢。女子爲陰，陰中必有陽，陽之中數七，故一七而陰血升，二七而陰血溢。”

91)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6. “凡子形肖父母者，以其精血，營於父母之身，無所不歷也。是以父一肢廢，則子一肢，不肖其父，母一目虧，則子一目，不肖其母。”

92)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6. “精未通而御女，以通其精，則五體有不滿之處，異日有難狀之疾，陰已痿而思色，以降其精，則精不出內敗，小便道澀而爲淋。”

93)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6. “天癸既至，踰十年，無男子合則不調，未踰十年，思男子合亦不調。不調則舊血不出，新血誤行，或潰而入骨，或變而之腫，或難合而難子。”

7) 除疾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지극하게 그 증상을 살피고 즐거하고 좋아하는 것을 물으며 질병이 발생하게 된 내력을 살피고 그때 환자가 앓던 바를 관찰하여 그 病의 처음과 끝을 궁구할 것을 주문하였다⁹⁵⁾. 또한 이러한 窮究를 통하여 “外病이면 안을 치료하며 上病이면 아래를 치료하고, 病든 臟의 虛實을 변별하며 病든 臟의 母子를 通하게 하고, 환자의 늙음과 건강함을 관찰하며 病의 얇고 깊음을 참작하여 藥劑를 만들어 완전무결한 上功에 이르러야 한다.”⁹⁶⁾라고 하여, 病所에 따른 기본적인 처방을 제시하였고 臟의 虛實·母子관계와 질병의 深淺 및 환자의 老壯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藥劑를 만드는 것은 一味로 만드는 것이 上이고 二味는 다음이며 多味로 만드는 것은 下가 된다.…… 藥이 증험되지 않았으면 급히 투여하는 것을 절대 경계해야 한다. 大勢가 이미 제거되었으면 餘勢에는 재차 약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⁹⁷⁾라고 하여, 가급적이면 藥材의 가짓수를 줄여 정밀하게 사용하되 증험되지 않은 약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치료를 통하여 질병의 大勢가 제거되었으면 나머지 가벼운 餘勢는 신체 정기의 회복에 의해 자연스럽게 치유되도록 놔둘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서 ‘환자의 老壯’을 언급한 점과 아울러 服藥하는 量을 환자의 肥瘦에 따라 조절할 것⁹⁸⁾을 언급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체질에 대한 일정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상에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란 없으니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가 있을 뿐이고, 藥

94)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6. “合男子多，則歷枯虛人，產乳衆，則血枯殺人。”

95)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6. “除疾之道，極其候證，詢其嗜好，察致疾之由來，觀時人之所患，則窮其病之始終矣。”

96)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6. “外病療內，上病救下，辯病藏之虛實，通病藏之母子，相其老壯，酌其淺深，以制其劑，而十全上功至焉。”

97)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6. “制劑獨味爲上 二味次之，多品爲下。…… 當驗之，藥未驗，切戒亟投。大勢既去 餘勢不宜再藥。”

98)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6. “修而肥者，飲劑豐，羸而弱者，受藥減。”

物에는 대신하기 어려운 藥品이란 없으니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⁹⁹⁾라고 하여, 환자의 질병을 잘 치료하지 못하거나 혹은 藥材의 결핍을 핑계 대는 의사들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다.

8) 審微

의사의 誤治로 인하여 질병을 얻기도 하고 證에 眞假가 있어 세심한 변별을 요하는 경우도 있으며 病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증세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진찰을 잘 못하여 가벼이 여겨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여 수명을 줄이는 것은 의사가 精微하게 살피지 않은 결과라고 하였다¹⁰⁰⁾. 精微하게 살펴야 할 경우로서 3가지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浮栗經·二氣篇』의 문장을 인용하여 “모든 熱한 것은 氣를 瀉하게 하고 모든 冷한 것은 罨하게 하니, 熱하면 먼저 臟을 서늘하게 하고 冷하면 먼저 血을 따듯하게 해야 한다.”¹⁰¹⁾라고 하였으니, 寒熱로 인한 병리변화와 그에 따른 우선적 치법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腹痛篇」의 문장을 인용하여 “乾痛에 일정한 때가 있는 것은 蟲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고, 출산 후의 남은 통증은 모두 腫으로 변한다.”¹⁰²⁾라고 하였으니, 腹痛의 구분에 따른 원인과 추후 변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傷寒篇」의 문장을 인용하여 “傷風과 時疫과 濕暑와 宿痰은 癰을 생기게도 하고 疹을 생기게도 하는데, 모두 傷寒의 類이다. 사람이 癰을 많이 앓을 때에는 마땅히 癰을 막아야 한다. 사람이 疹을 많이 앓을 때에는 마땅히 疹을 막아야 한다. 春瘟·夏疫에는 內證이 먼저 나타나고 中濕·中暑에는

芥·朮로 시험해야 한다. 發散劑를 투여하여 汗·汗·下시키면 모두 이 證에 이르게 되는데, 宿痰을 잘 못 치료한 것이라 일컬으며 반드시 四肢를 못쓰게 된다.”¹⁰³⁾라고 하였으니, 각 질병의 특성과 적합한 藥材 및 誤治로 인한 후유증을 언급하였다.

9) 辨書

孔子로 인해 三皇의 책이 없어졌고 盧나라 출신인 扁鵲으로 인해 盧醫가 많아짐을 언급하면서, 『素問』이란 책도 後代의 사람들이 黃帝와 岐伯에게 託名한 것¹⁰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漢나라 以前 시대에는 學說만 있었지 處方은 없었으며, 漢나라 以後 시대에는 처방만 있었지 學說은 없었다. 學說은 이치를 배반하지 않았고 처방은 義理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後學으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또한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것이다.”¹⁰⁵⁾라고 하여, 책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믿고 공부함에 있어서 상당히 탄력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終局에는 오래된 책들을 통한 博學多識과 많은 경험을 통하여 病·脈·藥에 통달할 것을 주문하였는데¹⁰⁶⁾, 이처럼 의학에 대한 그의 열의에 찬 표현들은 明代의 江瓘에 의해 名言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¹⁰⁷⁾.

한편 『素問』의 五運六氣에 대해서는 그의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俞跗와 扁鵲이 논하지 않았고 淳于意와 華佗가 상고하지 않은 점을 첨언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¹⁰⁸⁾.

99)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6. “世無難治之疾, 有不善治之醫, 藥無難代之品, 有不善代之人.”
 100)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546-547. “疾有誤涼而得冷, 證有似是而非, 差之毫釐, 損其壽命.…… 病有微而殺人, 勢有重而易治, 精微區別, 天下之良工哉.”
 101)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6. “諸熱皆爲瀉, 諸冷皆爲積, 熱則先涼臟, 冷則先溫血.”
 102)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6. “乾痛有時, 當爲蟲, 產餘剩痛, 皆變腫.”

103)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546-547. “傷風時疫濕暑宿痰, 作癰作疹, 俱類傷寒. 時人多癰, 宜防爲癰, 時人多疹, 宜防作疹. 春瘟夏疫, 內證先出, 中濕中暑, 試以芥朮投之. 發散劑吐汗下俱至此證, 號宿痰失導, 必肢廢.”
 104)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7. “尼父刪經, 三墳猶廢, 扁鵲虛出, 盧醫遂多, 尙有黃岐之醫籍乎! 後書之託名於聖喆也.”
 105)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7. “由漢而上, 有說無方, 由漢而下, 有方無說, 說不乖理, 方不違義, 雖出後學, 亦是良師.”
 106)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7. “師友良醫, 因言而識變, 觀舊舊典, 假筌以求魚, 博涉知病, 多識識脈, 屢用達藥, 則何愧於古人.”
 107) 江瓘. 名醫類案(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411.

10) 問子

자식을 갖는데 있어서 남녀가 교합하는 시기의 나이가 중요하다고 보았다¹⁰⁹⁾. 그 나이로 남자의 경우는 精이 통하는 16세가 아닌 陽氣가 충분히 갖추어진 30세를 언급하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天癸가 이르는 14세가 아닌 陰氣가 충분히 갖추어진 20세를 언급하였다¹¹⁰⁾. 이처럼 남녀간에 陽氣와 陰氣가 충분히 갖추어진 뒤라야 쉽게 아이를 배고 뱃속에서 길러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으며, 그렇게 출생한 아이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¹¹⁾.

한편 득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나 부인이 출산한 자식이 모두 女兒인 경우가 있고, 출산한 자식이 모두 男兒인 경우가 있으니, 大王께서 남아를 많이 낳은 부인을 정성껏 찾아 구하여 宮府에 머무르게 하여 得男하는 방법을 상의하십시오.”¹¹²⁾라고 하여, 뚜렷한 이치를 제시하진 못하고 유경험자에게 자문을 구하라는 정도의 언급만 있을 뿐이다.

10편의 醫論 중에서 앞서 소개된 「受形」, 「精血」과 이곳의 「問子」를 통하여 남녀의 개별적 건강관리와 적합한 교합시기, 그리고 이를 통한 건강한 아이의 출산 및 출산, 수유 등으로 인한 부인의 건강상태를 염려하는 등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 소아와 부인에 대해 언급한 점은, 그 당시 전란과 질병으로 인구가 격감하는 추세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을 제정하고 이러한 정책이 의학계에 반영되어 부녀자와 소아의 보건을 중시¹¹³⁾하게 된 시대

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 기타

저징은 치료를 함에 있어 먼저 마음의 苦樂과 육체의 번성·憔悴와 마음의 풍속과 水土의 宣通함과 氣血의 강약을 살핀 연후에 처방을 제단하여 약을 사용하였다¹¹⁴⁾. 또한 과부와 비구니를 치료함에 있어서는 처첩의 치료와 달리 하였는데¹¹⁵⁾, 許叔微¹¹⁶⁾와 羅謙甫 및 武之望¹¹⁷⁾ 등이 이 說을 좇았고 「提要」에서는 이를 두고 “前人이 밝히지 못한 바를 밝힌 것이다.”¹¹⁸⁾라고 평가하였다.

「辨書」에서는 五運六氣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俞跗·扁鵲·淳于意·華佗 등을 언급하였고, 丁介는 跋文에서 저징이 楊慶¹¹⁹⁾과 淳于意의 秘方을 전해 받은 것으로 표현하였으니¹²⁰⁾, 이러한 의가들로부터 일정부분 의학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조현가의 『醫貫』에 인용된 저징의 말을 살펴보면 “褚齊賢云 人之初生受胎, 始於任之兆, 惟命門先具. 有命門, 然後生心, 心生血. 有心然後生肺, 肺生皮毛. 有肺然後生腎, 腎生骨髓. 有腎則與命門合, 二數備, 是以腎有兩岐也.”¹²¹⁾라고 하여 사람이 처음 생겨남에 命門이 먼저 갖추어 진다고 하였고, “人生先生命門火, 此褚齊賢之言也, 發前人之所未發.”¹²²⁾라고 하여 이러한 命門의 火가 먼저 생겨난다는 것은 앞서 람들이 밝히지 못한 바를 밝힌 것이라고 조현가는

108)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7. “歲月日時, 甲子乙丑, 次第而及, 天地五行, 寒暑風雨, 倉卒而變, 人嬰所氣, 疾作於身. 氣難預期, 故疾難預定, 氣非人爲, 故疾難人測. 推驗多舛, 拯救易誤, 俞扁弗議, 淳華未稽, 吾未見其是也.”
109)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7. “合男女必當其年.”
110)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7. “男雖十六而精通, 必三十而娶, 女雖十四而天癸至, 必二十而嫁, 皆欲陰陽氣完實.”
111)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7. “而後交合, 則交而孕, 孕而育, 育而爲子, 堅壯強壽.”
112)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7. “然婦人有所產皆女者, 有所產皆男者, 大王誠能訪求多男婦人, 謀置宮府, 有男之道也.”
113) 박현국 외 3人. 魏晉南北朝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대한

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2). p.190.
114) 張杲. 醫說(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3.
115) 張杲. 醫說(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3.
116) 許叔微.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141.
117) 武之望. 濟陰綱目. 서울. 一中社. 1992. p.3.
118)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2. “其論寡婦僧尼, 必有異乎妻妾之療, 發前人之所未發.”
119) 楊慶 : 陽慶을 말한다. 『古今醫統大全』의 注에 의하면 원래 ‘元里公楊慶’으로 기록된 것을 『史記·扁鵲倉公列傳』에 근거하여 ‘公乘陽慶’으로 고쳤다 한다.(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8.)
120)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8. “聞澄傳楊淳秘方”
121) 趙獻可. 醫貫.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6.
122) 趙獻可. 醫貫.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9.

말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命門의 火를 우선시 하는 저징의 醫學觀을 엿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같은 그의 의학사상은, “사람의 ‘主’는 命門의 無形한 火이며 이는 太極이다.”¹²³⁾라고 주장한 조헌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저징이 吳郡太守로 있을 당시 李道念이란 백성을 치료한 일화¹²⁴⁾를 살펴보면, 望診으로 李道念에게 奇疾이 있음을 알았고 脈診을 통하여 奇疾의 발생 원인과 적합한 치료약물을 제시하였으며 약물에 대한 반응을 살펴 치료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였다. 이것으로 보건데 저징은 진단에 있어서 望診과 脈診에 뛰어났으며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까지 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II. 결 론

저징과 그의 의학사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저징의 생애와 저서

저징의 字는 彦道(彦通)로 河南 陽翟사람이다. 출생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으나 東晉시대인 420년 이전에 출생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483년(南齊·永明元年)에 侍中과 右軍將軍을 지내던 중 卒하였고, 499년(永元元年)에 金紫光祿大夫에 추증되었다.

본디부터 재주와 기량이 있어 널리 經方을 좋아하고 의학을 잘하였으며 형제간의 우애가 남달랐던 그는, 의학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였고 치료함에 있어서는 貴賤을 가리지 않았다.

그의 저서로는 『雜藥方』과 『褚氏遺書』가 있다. 『雜藥方』은 亡失되었으나, 비구니와 과부를 위한 특별한 처방이라든지 咳血에 대한 人尿의 활용 및 虛

損으로 인한 勞極과 관계된 내용들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褚氏遺書』는 受形·本氣·平脈·津潤·分體·精血·除疾·審微·辨書·問子 등 十篇의 醫論으로 구성된 책으로서, 그 내용이 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의 石版에 새겨져 있던 까닭에 『褚氏遺書』라는 명칭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석판의 내용은 934년 이전에 처음 발견되어 935년에 蕭廣의 무덤에 재차 棺槨의 형태로 다시 매장되어 보존되다가 1127년에 승려 釋義樞에 의해 중이에 써져 보존되었으며, 이후에 劉繼先(劉義先)이 나무에 새기고 출판하여 1201년에 이 책이 비로소 전해지게 되었다.

『褚氏遺書』의 眞僞와 관련하여 살펴본바, 저징의 저작이라고 생각할만한 학술사상적 상관성이 일부 있기는 하나 『辨書』에 나타난 運氣관련 내용을 보건데, 『褚氏遺書』는 後人이 저징의 저작으로 僞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저징의 醫學思想

저징의 의학사상은 『內經』을 비롯하여 俞跗·扁鵲·淳于意·華佗·陽慶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望診과 脈診 및 질병의 예후를 판단함에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치가 옳다면 託名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래된 책들을 통하여 博學多識할 것과 많은 경험을 통하여 病·脈·藥에 통달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만 『素問』의 五運六氣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인체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命門의 火를 우선시 하였고 脾胃를 중시하였으며, 이로부터 充滿되는(陽)精과(陰)血은 人身의 성장, 질병의 유발, 출생되는 아이의 성별 및 향후의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장애를 닮지 않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체의 각 부위를 竅·肢·關·餘·附의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耳·目·四肢의 단련 방법과 臟·胸·四肢의 계절별 양생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氣는 陽氣와 陰氣로 구분되는데, 각각 운행방향과 순행경로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氣의 운행이 不利하게 되면 氣弱 → 血滯 → 風濕寒暑의 侵襲 → 痰疾

123) 김진호, 박해모, 이용범. 『醫貫·玄元膚論』에 대한 번역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25(3), p.114.

124)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8. “其守吳郡也. 民有李道念. 以公事至郡. 澄遙見謂曰汝有奇疾. 道念曰 某得冷疾五年矣. 澄診其脈曰 非冷也. 由多食鷄子所致. 可煮蘇一斗服之. 即吐物如升許. 涎囊之動. 挾涎出視. 乃一鷄雛. 翹距已具而能走. 澄曰 未也. 盍服其餘藥. 從之. 凡吐十三枚. 疾乃瘳.”

(痰積)의 과정으로 병리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인체 내의 水는 그것의 所在나 체외로 배출되는 형태에 따라 痰·血·精·汗·泄瀉·水로 명명하였는데, 이 중 血은 目·耳·四肢·肌膚를 기르는 기능을 발휘한다. 血의 병리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咳血의 치료에 寒涼한 약재 대신 소변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陰血을 돌리는 주체가 陽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후대 의가들에 의해 탁월한 식견으로 평가받았다.

환자를 대하고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마음의 苦樂과 육체의 번성·憔悴와 마음의 풍속과 水土의 宣通함을 살피고 精微하게 證候를 窮究함은 물론이거니와 환자의 喜惡·病歷·체질 등을 관찰하여 病所와 臟의 虛實·母子관계 및 질병의 深淺에 따라 가급적 적은 가짓수의 증험된 藥材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또한 과부와 비구니를 치료함에 있어서는 처첩의 치료와 달리 하였는데, 「提要」에서는 이를 두고 “前人이 밝히지 못한 바를 밝힌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脈位와 관련하여 여자의 경우 尺에 心肺를 배오한 관계로 후대 서춘보에 의해 비판받기도 하였으나 子에서 一陽이 생하고 午에서 一陰이 생하는 易의 이치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半陰陽’의 脈에 대해 언급하는 등 脈과 관련한 그만의 독특한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褚氏遺書·除疾』에 나오는 문장으로써 저징의 醫療觀을 함축하여 본 논문을 끝맺고자 한다.

“세상에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란 없으니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가 있을 뿐이고, 藥物에는 대신하기 어려운 藥品이란 없으니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논문>

1. 김진호, 박해모, 이용범. 『醫貫·玄元膚論』에 대한 번역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2. 25(3). p.114.
2. 박현국 外 3人. 魏晉南北朝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6. 19(2). p.190.

<단행본>

1. 김기욱 外 15人 著. 강좌 중국의학사. 고양시. 대성의학사. 2006. p.100.
2. 허준.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4. p.76.
3.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132.
4. 褚澄. 褚氏遺書(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pp.543-544, 545-546, 546-547.
5. 張杲. 醫說(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3.
6. 陳夢雷 纂輯. 醫術名流傳(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醫聖堂. 1993. p.117, 118. pp.117-118.
7. 汪昂. 本草備要. 서울. 高文社. 1989. p.235.
8. 樊樹志 著, 김지환 外 3人 옮김. 100가지 주제로 본 중국의 역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p.247.
9. 許叔微.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141.
1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942.
11. 武之望. 濟陰綱目. 서울. 一中社. 1992. p.3.
12.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507, 509, 510.
13. 趙獻可. 醫貫.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6, 9.
14.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8. pp.18-19.
15. 江瓘. 名醫類案(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411.

<기타>

1. 한국고전번역원. 오주연문장전산고.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2013.6.15.
2. 한국고전번역원. 성호사설.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2013.6.15.